

# 영암 F1 코리아 그랑프리 D-27



최근 열린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F1 머신들이 질주하고 있다.

## 16번째 경주... 챔피언 결정 '승부처'

### 13번 대회까지 페텔 우승 8번... 日·영암서 확정 가능성

### 伊 피렐리 타이어 승부 변수... 팀별 피트스톱 전략 관심

10월 14일부터 3일간 열리는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이하 F1)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F1 경주장을 찾는 전 세계 관람객만 20만명, TV 시청자만 6억명이다. 특히 전체 19라운드 중 16번째로 열리는 코리아 그랑프리는 시즌 챔피언 결정을 위한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눈여겨봐야 할 관전 포인트를 알아본다.

◇페텔, 시즌 챔피언 확정하나=지난 11월 13번째 대회로 치러진 이탈리아 그랑프리까지만 보면 레드불 레이싱팀의 제바스티안 페텔(24·Sebastian Vettel·독일)이 1위를 질주하고 있다. 현재 8승(드라이버 포인트 284점)을 챙기면서 2위 페르난도 알론소(172점·페라리)에 비해 112점이 앞서있다. 3위 쉘스톤 벤투리(167점·맥라렌), 마크 웨버(167점·레드불)와는 117점 차이가 난다.

현재 남은 대회는 싱가포르·일본·한국·인도·아부다비·브라질 등 6개. 매 경기마다 1위가 얻는 포인트는 25점.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페텔이 나머지 경기를 모두 포기, 한 점도 못 얻는다고 가정하고 2·3위가 6차례 모두 우승(150점)한다면 챔피언이 바뀔 수 있

다. 하지만 페텔은 올 시즌 한 번도 계임을 포기한 전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일본, 코리아 그랑프리는 페텔의 시즌 챔피언을 확정 짓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현재 페텔은 13번째 대회까지 모두 10차례의 예선 1위(풀 포지션)를 기록했다. 남은 6개 대회 중 4번의 풀 포지션을 확보하면 61년 F1 역사상 최다 풀 포지션 드라이버라는 새 역사도 쓰게 된다.

◇타이어에 주목하라=올 시즌 F1 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타이어 교체다. 20년 만에 F1 타이어 공급업체로 복귀한 이탈리아 타이어 메이커 피렐리 타이어는 승부를 좌우하는 변수로 등장했다.

지난 7월 24일 독일 뉴른부르크링 서킷에서 열린 독일 그랑프리에서는 마지막 60바퀴를 돌던 펠리페 마사(30·브라질·페라리)와 제바스티안 페텔이 각각 4·5위로 피트로 들어왔지만 피트스톱(타이어 교체를 위해 정비공간에 들어가는 것)에서 페텔보다 1초가 뒤진 마사는 5위로 내려앉았다. 마지막 바퀴지만,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 피트에 들어갔다가 순위가 바뀐 것이다.

피렐리 타이어는 2010년까지 F1에 타이

어를 공급한 일본 브리지스톤 것과 달리 마모도가 높아진 게 특징이다.

따라서 각 팀은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 피트(정비공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순위가 계속 변하는 긴박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피렐리는 한국 대회의 경우 모나코, 캐나다, 헝가리, 싱가포르 대회와 같은 수준의 소프트, 수퍼소프트 타이어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퍼소프트는 접지력이 가장 좋아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빨리 닳아지는 단점이 있다. 주행거리도 100km 정도로, 하드(170km)보다 떨어진다.

◇슈마허 '추월 기술', 마크 웨버의 '징크스'에 관심=현재 3위인 마크 웨버의 경우 올 시즌 13차례의 대회까지 모두 3차례 풀 포지션을 차지했다. 하지만 예선 1위를 차지해놓고도 우승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스타트 그리드 라인 앞을 차지할수록 우승 확률도 높지만 마크 웨버는 잦은 실수로 선두권에서 멀어지는 징크스를 갖고 있다.

미하엘 슈마허는 올 시즌 저조한 기록으로 F1 황제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추월 능력은 코리아 그랑프리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 벨기에 대회에서는 24명의 드라이버 중 꼴찌로 출발했지만 추월을 거듭하며 5위의 기록을 냈다. 지난 1995년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는 예선 17위로 출발, 16대를 제치고 우승한 기량을 선보인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만원으로 즐긴다

첫날 C석 20명 이상 단체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1만원짜리 티켓이 등장했다.

F1대회조직위원회는 수십만원짜리 티켓에 대해 관람을 망설이는 관람객들을 위해 1만원짜리 티켓을 내놓았다고 18일 밝혔다. 연습경기가 펼쳐지는 금요일(10월14일) 관람권으로, 좌석 수가 1만2593석인 C석이다. 단, 20인 이상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금요일의 경우 연습경기의 탓에 많이 찾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많은 관람객이 저렴하게 F1 대회의 재미를 만끽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C석은 모자 모양의 서킷 복단 위치 상설 피트에 놓인 특별 관람석으로, 400인치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고 영암 서킷에서 3번째로 긴 직선 구간(800m)을 거쳐 4~5~6번 코너로 이어지는 M자형 커브길을 통과하는 코너 탈출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일본의 F1 전문지 'F1토쿠슈(特報)'지의 타구치 기자는 "C석 20인 이상 올라가면 머신의 움직임을 끝까지 볼 수 있는 매력이 있다"고 관람석 특징을 소개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만큼 재밌다 F1 100배 즐기기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12개 팀, 24명(각 팀 2명 출전)의 드라이버가 진출해 레이스를 펼친다.

형형색색의 F1 머신과 드라이버의 헬멧, 다양한 색깔의 깃발의 의미를 알고 보는 것도 F1을 재미있게 즐기는 요령 중 하나다.

◇색깔을 보면 머신, 드라이버가 보인다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는 F1 대회에서 관람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우선 머신의 경우 국가를 상징하는 컬러와 스폰서 기업의 상징 이미지가 반영돼 있다. 페라리 머신의 붉은색은 국가 대항적 성격이 강했던 F1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컬러다. 1950년 F1 경기에 참가했던 유일한 원년 멤버로, 이른바 '이탈리안 레드(Italian Red)'를 지금껏 고수하고 있다. 축구의 훌리건에 비견되는 페라리의 광팬을 지칭하는 '티포시(Tifosi)'의 붉은 물결은 지난 11일 이탈리아 몬자 서킷의 최대 볼거리 중 하나다.

'은색'은 메르세데스 GP의 상징색이다. 1934년 메르세데스는 레이스 대회를 위해

경주차를 만들었다가 무게 규정에 걸리자 철제 바디에 들어가는 흰색 페인트 무게를 빼기에 이르렀고 이 때 은빛 알루미늄 바디가 노출됐다. 이게 바로 '은빛 화살'이라는 뜻의 '실버 애로우(Silver Arrow)'다. 이후 메르세데스 GP는 니코 로즈버그, 미하엘 슈마허 등 독일 출신 드라이버로 '독일'의 색깔을 강화했고 녹색을 포함했다.

상업성이 강한 대회 성격상 스폰서 기업의 상징색을 쓰는 머신도 많다. 오스트리아 음료회사인 레드불이 소유한 두 팀 레드불 레이싱팀과 스쿠데리아 토로로소(이탈리아어로 '붉은 황소')는 모두 붉은 황소 문양이 들어간다. 색깔도 붉은색과 남색이 비슷하게 뒤섞여 헛갈리기 쉽다. 요령은 록핏(운전석) 뒷부분의 롤 오버 바(roll over bar·차량 전복시 탑승자 보호 목적으로 설치된 바) 색깔이 밝은 노란색이면 레드불, 진한 청색이면 토로로소다.

이외 맥라렌은 메인스폰서인 '보다폰'의 은색 바탕에 붉은 로고를, 르노는 고유색인 노란색에 검정색을 섞어 팀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있다.



### 머신 컬러, 국가·스폰기업 상징 메르세데스는 은색·페라리는 붉은색

머신으로 팀을 가려내더라도 경기 내내 헬멧을 쓰고 있는 각 팀당 2명의 드라이버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롤 오버 바 위쪽 색깔을 보면 된다. 빨간색은 팀에서 가장 빠른 드라이버, 노란색은 두 번째 드라이버 표시다.

다른 하나는 헬멧 색깔과 문양으로 구별하는 법이다. 헬멧의 경우 베텔 등 레이스마다 다른 디자인을 가져가는 선수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에 일부를 첨가하는 방식이어서 좋아하는 선수부터 기억해 놓으면 경기를 즐기는데 도움이 된다.

'F1 황제' 슈마허(42·독일)는 7차례 시즌

챔피언을 기록한 의미로 별 7개가 그려진 다홍색 헬멧을 쓰지만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지난 8월에는 골드 헬멧(사진 아래)을 착용한 바 있다.



◇깃발 색깔, 경기 흐름을 아는 지름길 = 깃발의 색만 봐도 경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레이스 중 보이는 녹색기는 트랙 위의 위험 상황이 없어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마음껏 달려도 된다는 의미다. 청색기는 뒤에 추월을 시도하는 더 빠른 경주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깃발. 흑색기는 경기 도중 명백히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페널티를 받은 드라이버 차 번호와 함께 등장하는데 3바퀴 이내에 피트로 들어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

백색기는 트랙에 구급차나 견인차 등이

투입됐으니 조심하라는 뜻. 적색기는 레이스 중 사고가 났다는 의미로 더 이상 경기가 어려울 때 등장한다. 노란색 깃발은 트랙에 사고가 났으니 감속을 하라는 뜻이며 이 때는 추월이 금지된다. 흑색과 백색이 대각선을 따라 나뉘어져 있는 흑백기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드라이버에 대한 경고 깃발이다.

흰색과 백색이 번갈아가며 체크무늬를 이루고 있는 체크기는 모든 경기가 종료됐다는 것을 알리는 깃발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출몰버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10월 18일까지 30% SALE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모든 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 독점 수입) (주)홍스페이스는 100%이태리 친환경 엔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 ☎ 062 226 7567

SPACE 홍스페이스